

중유학생 2400명 광주·전남 입국 앞뒤

총 3084명 22개 대학 재학생이거나 입학 예정

대학 자체적 대책 마련하되 애로사항 지원 방침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새 2015명 늘어난 4만465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3000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 2400여명이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대학들과 대책

을 모색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3084명이 광주·전남 지역 22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다. 지역별 중국인 유학생 수는 호남대 962명, 전남대 광주캠퍼스 722명 등 광주 11개 대학에 2551명, 전남

대 여수캠퍼스 131명, 초당대 91명 등 전남 11개 대학에 533명이다.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은 방학 동안 중국에 돌아가지 않거나 일찌감치 입국했지만 입국을 앞둔 이들이 대부분이다. 광주시는 2551명 중 80.4%에 이르는 2051명이 아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전남도는 533명 중 81.6%인 435명이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순천제일대 중국인 유학생 19명 중 18명이 입국을 8월로 마무리 등 입학을 포기하거나 입국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어 입국자 수는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시에 귀국할 때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대학들의 우려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전남도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확보하는 대로 이를 각 대학에 배부할 계획이다.

최영범 기자

동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상황점검회의

광주 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12일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상황점검회의에서는 감염증 대응을 위한 그 간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각 부서 간,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강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주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두드림, SNS 등에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노인시설 휴관으로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구, 주민생활 법률문제 해결, 우리동네 변호사

광주 서구가 주민생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우리 동네 변호사’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다. 우리동네 변호사는 서구 법률사단단에 위촉된 6명의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구청 및 운천 열린사랑방에서 운영된다. 변호사들은 주민들에게 민사, 가사, 민생침해 분야 등 생활법률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우리 동네 변호사와 상담한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6.4% 이상이 만족했다고 답했다.

남구,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모집

광주 남구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저학년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을 인솔할 교통안전 지킴이를 공개 선발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길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지킴이 신청자 접수가 오는 25일 까지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18명이며,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면서 범죄 경력이 없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교통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주민의 경우 우선 선발의 기회가 부여된다.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기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침체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북구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조기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경영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례보증금을 출연하고 13일부터 특례보증 대출 및 이차보전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북구 1억 원, 광주은행이 5000만 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인 22억 5000만 원을 신용보증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 원 까지 대출 가능하며(북구 창업학교 수료자 신규 창업 시 최대 3000만 원) 특히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2년간 연 2%의 이차차액을 지원한다.

광산구, 신종 코로나 피해자·업체 지방세 지원

광주 광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 광산구의 ‘지방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비롯해,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을 겪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기한 연장 △재산세·자동차세 등의 징수유예 및 체납자의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 조치에 들어갔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신종 코로나 경제침체 대응해야”

기자회견 갖고 경제살리기 대책 발표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들이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된다”며 “전남도는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가동과 도시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즉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지역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고용률을 향상시켜야 경제위기단계별 대응 매뉴얼 경제상황점검위 운영 촉구 지역경제 활력·고용률 향상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전남도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호남고속철 2단계, 남해안철도 등 47개 사업 1조

허성은 기자

강아라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Journalism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능력에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빈부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